

2020년도 정기총회 잠정 연기

코로나바이러스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2월 26일에 열리기로 예정됐던 정기총회가 잠정 연기됐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 결산안 승인 안건과 2020년도 예산 승인 안건 및 회무 규정 변동사항 등을 처리할 예정이

었으나 부득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사무처는 전 회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연기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으며, 추후 일정은 상황이 호전되는대로 일자를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MBC 신임 사장에 박성제 보도국장 선임

MBC의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는 2월 24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박성제 보도국장을 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 박사장은 1993년 MBC에 입사해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등을 거쳤으며 MBC 취재센터장과 보도국장을

맡아왔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는 일부 임원 선임도 있었다.

콘텐츠 총괄 부사장 정호식, 기획조정본부장 강지웅, 미디어 전략본부장 도인태, 보도본부장 민병우, 경영본부장 전병덕, 방송인 프라본부장 김상훈 등이다.

발전 기금을 내주신 분들(1월 20일 이후)

- ▶최승일(보도) 100만원
- ▶정영환(보도) 50만원
- ▶서정훈(보도) 30만원
- ▶박승기(관리) 30만원
- ▶박종규(기술) 20만원
- ▶이대교(관리) 20만원
- ▶강 건(춘천) 10만원
- ▶김종수(편제) 10만원

- ▶박우정(보도) 100만원
- ▶김종복(편제) 30만원
- ▶고장석(편제), 박민정(ANN) 30만원
- ▶서동식(관리) 20만원
- ▶신선희(기술) 20만원
- ▶조동근(기술) 20만원
- ▶익 명(보도) 10만원
- ▶권상규(관리) 10만원

- ▶서경주(편제) 10만원
- ▶백종숙(관리) 10만원
- ▶윤종옥(관리) 10만원
- ▶김규홍(관리) 10만원
- ▶이종성(기술) 10만원
- ▶권오용(편제) 10만원
- ▶김병택(편제) 5만원

- ▶염영수(편제) 10만원
- ▶김종창(편제) 10만원
- ▶최영식(관리) 10만원



조동근 강 건



박성제 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문화방송사우회



이사회에서 예,결산(안) 심의 등 마쳐

1월 28일 오전, 2020년도 제1차 이사회가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임원 21명 중 19명이 참석(2명은 위임)한 이날 논의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2019년도 결산 승인, 2020년도 예산(안) 승인, 발전기금 사용 승인, 기타 등이다. 2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산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그동안 봄,

가을 두 차례 진행하던 사우회 주관 동호회 행사(등산, 낚시, 바둑, 골프)를 1회로 줄이고, 매월 지급하던 동호회 지원금(한문공부와 캘리그래피 포함)은 현재의 절반 액수로 줄이기로 했다. 사우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5월 단합대회와 송년모임을 가질 것이며, 창립기념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화방송에 근무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 산사를 찾아가 산속의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며 참선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밤새 기도정진으로 신심을 달래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사를 떠난 뒤에도 일요일마다 절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는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정담을 나누는 모임이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저녁>에 있

습니다. 전에 사찰순례를 같이 다니던 불교연구회 회원님들과 불교에 관심 있는 선배님께서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락처: 장영호(010-8315-2422), 이상진(010-8991-3914)



임택근 고문 별세



연세대학교 1학년 신분으로 KBS

1월 11일 임택근 고문이 별세했다. 향년 89세. 6,25전쟁 당시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아나운서에 입문, 뉴스, 스포츠, 공개방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고인은 1964년 MBC로 옮겨와 '임택근모닝쇼' 등 유명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초창기 '방송계의 전설'로 일컬어진다. 1980년 전무이사를 끝으로 MBC를 퇴임한 뒤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역임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고재규(보도), 김억동(보도), 이병익(보도), 김근중(관리), 윤광중(관리), 박규식(보도), 이태섭(관리), 김낙현(관리), 유한기(편제), 정길화(편제), 김태홍(기술), 강 혁(보도), 이효석(관리), 전인하(보도), 나종석(보도)



고재규



김억동



이병익



김근중



윤광중



박규식



이태섭



김낙현



유한기



정길화



김태홍



강 혁



이효석



전인하



나종석

두 돌짜리 병어리



故 임택근(ANN)

이 글은故 임택근 고문의 '自傳에세이집 방송에 꿈을 싣고 보람을 싣고'에서 퍼온 것으로, 5년 전 인터뷰를 위해 뵈 자리에서 그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편집장)

방송 마이크 앞에서 반생을 보내다시피 한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방송 솜씨가 '청산유수 같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어린 시절 남달리 늦게까지 말문을 열지 못해, 부모님은 '혹시 병어리가 아닌가' 걱정이 태산 같았었다고 한다. 두 돌이 지나도록 '엄마'라는 말조차 못하는 나를 두고 어른들은 푸닥거리도 자주 했다고 한다. 어머님은 아침저녁으로 냉수를 떠놓고 '내 입이 열리도록' 빌고 또 빌었을 정도였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다듬잇돌 위에 올라서서 말문을 열고 중얼중얼 연설하는 흥내를 냈다고 한다. 그렇게 느지막이 말문을 틔운 내가 입에 파발총이라도 단 듯 빠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아나운서가 됐으니 어머님의 속끓임을 보답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싶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어떤 직업보다도 내가 말로 먹고 사는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것을 대견해 하셨다.

또 이런 일화가 있다. 수송국민학교에 입학해 신입생 대표로 강당에서 인사말을 하게됐다.

가난에 쪼들려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애육살이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만은 누구 못지않게 지극했던 어머님은, 겨울에 추위를 몹시 타던 내게 양말을 다섯 켤레나 신겨 학교에 보내곤 하셨다.

그날도 두툼한 양말을 신고 뒤통거리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가는 나를 보고 아이들은 웃음보를 터뜨렸다. 정작 내가 유명해진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제법 낭랑한 목소리로 열심히 외워 간 인사말을 중간쯤 했다는 순간, 그만 다음 부분을 잊어버린 것이다. 흥당무가 된 채 울상을 하고 서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바지에도 오줌까지 지려서 두 다리 사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무대 위의 오줌싸개가 돼버린 것이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신입생 대표라는 으쓱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키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집집마다 소금을 얻으러 다녀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빛바랜 사진처럼 떠오르는 어린날의 한 장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지는 그 추억은 내게 언제나 풋풋한 미소를 머금게 한다.

경조사항

구순: 조동호(관리) 31.3.29

팔순: 정 균(편제) 41.3.7 하광언(보도) 41.3.12 이상훈(업무) 41.3.21
류제국(편제) 41.4.8 유병대(기술) 41.4.8 권혁준(편제) 41.4.10
김윤근(대구) 41.4.10 고무송(편제) 41.4.15 신무성(전주) 41.4.22
문시웅(업무) 41.4.23 신준우(편제) 41.5.3 임웅길(기술) 41.5.9
황기찬(편제) 41.5.18 문성수(관리) 41.5.30 오학식(관리) 41.5.31

고희: 이도형(편제) 51.3.2 송인익(관리) 51.3.3 김세일(관리) 51.3.23
박삼열(관리) 51.3.23 이현규(편제) 51.3.25 조한건(관리) 51.4.30
최영식 51.5.1 김진홍(관리) 51.5.1 방남순(ANN) 51.5.2
김경태(편제) 51.5.13 박창순(대전) 51.5.14

회갑: 박명호(편제) 60.3.7 안택호(편제) 60.3.7 정병수(기술) 60.3.12
김낙현(관리) 60.3.29 윤창호(편제) 60.4.16 유승재(관리) 60.4.30

결혼: 이영상(편제) 장녀 2.8 오광택(보도) 차녀 2.15
고장석(편제) 박민정(ANN) 장남 2/23
문장환(기술) 딸 2.22 한재수(관리) 차남 3.7

부음: 한병우(보도) 장모상 1.9 정인영(편제) 모친상 1.10
염영수(편제) 부인상 1.17 정옥균(기술) 장모상 1.21
유경준(전주) 배우자상 1.23 이준희(보도) 장모상 2.7
최영식(관리) 장모상 2.8 이형관(보도) 모친상 2.13
정홍보(보도) 장인상 2.22 정철영(보도) 장모상 2.26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종인(편제)

1월 12일 별세. 향년 75세. 1973년 미술국 사원으로 입사. 1998년 제작본부 미술부에서 명예퇴직했다.



윤상호(기술)

1월 17일 별세. 향년 72세. 1987년 기술국으로 입사. 1994년 퇴사 후 미디어텍에서 국장대우로 2006년까지 근무했다.



이의열(관리)

2월 3일 별세. 향년 78세. 1970년 입사 후 인사, 총무부장, 총무, 재무국장 등을 역임하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강릉문화방송 사장으로 근무했다.



송윤섭(목포)

2월 14일 별세. 향년 90세. KBS를 거쳐 1968년에 목포MBC에 입사 후 1977년까지 근무. 보도부장 역임. 퇴직 후 초당약품, 백제약품 등에서 일했다.

김대수(업무)

1월 4일 별세. 향년 86세. 1963년 9월 입사 후 광고, 업무분야에서 근무했으며 1992년 광고기획위원으로 퇴직했다.

※ 제57호 부음 기사 중 **故신원호 회원**은 SBS로 이적한 적이 없기에 바로 잡습니다.

연회비

1월

고흥칠('11~'17, 80세 완납) 김상옥('20) 최영삼('15~'20)
박창복('18~'20) 이양길('19, 80세 완납) 이연현('16~'20)
김옥균('07~'16, 80세 완납) 강복주('20) 고춘호('20)
유수열('09~'18, 80세 완납) 엄기원('20) 마병두('17~'20) 김윤근('20)
강유현('19) 정봉일('20) 박기윤('20) 권태규('20) 박명호('16~'20)
최정일('20) 고무송('14~'20) 황수석('18~'20) 조성식('20) 김승수('20)
김종창('19~'20) 전지웅('20) 박영일('16~'20) 심준보('20~'21)
서정훈('20~'24) 홍신숙('20) 염영수('20) 이용구('17~'20)
이학규('19~'22) 박화진('20) 정명환('20) 김광안('20) 이의열('18~'20)

2월

심재주('16~'21, 80세 완납) 김상호('20) 최호철('19) 한병우('18~'20)
권혁화('19) 진수웅('20) 이연경('20) 김정명('20) 고창근('20) 이상립('20)
최우철('18~'20) 이하결('20) 신명현('20) 최영식('20~'21)
김종세('19~'20) 채애림('18~'20) 정국록('20) 하민웅('19~'20)
김종오('20) 백명순('20) 김채영('20) 정영희('20) 박찬순('20) 노영인('20)
안종순('20) 반주원('20) 이명순('20) 이인숙('20) 박민정('20) 박종순('20)
최운형('20) 안주희('20) 최화숙('20) 김선희('20) 황경자('20) 서은선('20)
남궁미('20) 이성호('20) 이종화('20) 장영배('19~'20)
김광백('20~'22, 80세 완납) 강효복('20) 권오용('20)

3월

강현식('20) 이상원('20) 구영희('06~'20)

주소 / 전화번호 변경

보도: 하영석 성동구 독성로 51(옥수동, 옥수강변풍림아이원)
윤정식 강남구 자곡로 36(세곡동, 강남효성해링턴코트)

편제: 김우룡 용산구 한강대로 69(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주거동)
천영숙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16(도내동, LH원흥도래울마을6단지)

관리: 손도정 송파구 백제고분로21길 6-25(삼전동)
고병조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46(풍동,스타팰리스)
이창원 동작구 상도로 346-2(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 프레스티지)
정준모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영덕동,식스뉴타워)
정종국 강서구 허준로 16-9(가양동, 강서한강월드메르디앙)

ANN: 이형균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79번길 6-23 (매탄동)

기술: 조학동 영등포구 가마산로(신길동)
노승화 김포시 김포한강8로148번길 8-15(마산동)
김철동 광진구 아차산로 311(자양동, 테라팰리스 건대2차)

업무: 신승훈 은평구 진흥로 267(불광동, 북한산래미안아파트)
문시웅 남양주시 늘을3로 65-26(호평동, 호평마을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회비와 발전기금계좌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또한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

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회/원/동/정



최 천(기술. 이사)

작년 말 기우회 송년 모임에서 문정철 회장의 뒤를 이어 신입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 부회장은 김창수 회원이 선임됐고 감사는 이원하 회원이 연임됐다.



김승월(편제. 이사)

1월 14일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협회인 '시그니스 서울' 회장에 선출됐다. 내년 8월에 서강대에서 열리는 '시그니스 세계대회' 준비위원장도 맡아 외빈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시그니스 총회에는 100여개 국가에서 300 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다.



박기병(관리)

2월 1일 대한언론인회 2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박 회장은 1958년 대한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한국기자협회장, 강릉, 춘천MBC 사장, 강원민방 사장 등을 지냈다.



정수열(편제)

작년 10월 29일 라디오 전문 채널인 경기방송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기존의 회사 내부 갈등이 계기가 돼 최근 이사회의 갑작스런 자진폐업 결정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원활하게 방송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호/회/소/식

문광회(회장 황귀철)

1월 17일 세종호텔에서 문화방송, 경향신문 광고인 모임인 문경회(회장 우윤근)와 함께 '합동 신년인사

회'를 가졌다.

우윤근 고문을 비롯해 29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대부분 연로하신 회원들을 배려해 종전의 저녁모임을 점심모임으로 바꿨다.

美洲지회(회장 김정수)

2월 1일(토) Los Angeles 한인타운에 위치한 Tasty Grill에 11명의 사우회원과 부인들이 모여 신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매년 봄, 가을에 정기모임을 갖고, 연회비를 100\$로 하며, 올해 첫 모임은 6월 6일 강규철 회원 댁에서, 두 번째 모임은 11월 5일 이은혜 회원 댁에서 갖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는 강규철 부부, 김용현 부부, 이효영, 이은혜, 박재규 부인, 이원일 부인, 정진철 부부, 김정수 등이다.

핏줄의 진실과 역설



김용현(미주)

입양된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또 더러는 성공도 이룬 사람들이 굳이 친부모를 찾아 나서는 장면을 우리는 때때로 목격한다. 키운 부모와 낳은 부모 사이에 자칫 갈등이 일 수도 있는 일인데 헤어진 자식들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입양은 아니었으나 자식들을 미국에 데려와 키우는 이민자 부모들에게는 특별한 느낌이 있다.

대저 핏줄이란 무엇인가. 언젠가 한인 입양아를 키우는 한 미국인 부부의 애환이 소개된 일이 있었다. 자기가 그토록 정성을 들여 키운 아이가 생부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여름방학에 한국 방문을 시켰더니 그 뒤로는 계속해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우울해지

더라는 것이다. 양부모의 마음 한 구석에는 배신감이 생겼을 것이다. 핏줄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 해답은 2014년 1월 알츠하이머병으로 정계를 은퇴한 '신호범 의원'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강 나온다.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5살 때 고아가 된 신호범 소년은 거리의 부랑아로 떠돌다가 고마운 미군병사를 만나 유타주로 입양이 돼 대학교수, 워싱턴 주 5선의 상원까지, 입양아 출신으로는 드물게 보는 성공사례였다.

그렇게 성공한 신호범 의원에게도 꼭 풀고 가야할 일이 있었다. 핏줄과의 화해였다. 서울에 가서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만나 '왜 그때 자기를 버렸는지' 그 사연을 듣고 싶었다.

번번이 자리를 피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불시에 찾아간 아들 앞에 엎드려 '그 때 살길이 없어 너를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재혼을 했다'는 고백을 듣고는 부자간에 뒤엉켜 펄펄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했다고 한다.

최근 남다른 핏줄의 사연을 갖고 있는 두 미국인의 이야기가 화제다. 일본계 미국인 외교관과 한국계 미국인 정치가다. 이들은 핏줄의 사연과 지위와 처지는 전혀 다른데도 공교롭게도 하는 이야

기는 똑같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려 국내 동포들과 미주한인사회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일본계 미국인이라, 한민족의 아픈 역사를 이해해준다면 주한 미국 대사보다는 제3국으로 보냈어야 했다. 해리스 대사는 그런 한국인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임 초부터 한국정부나 한국인에 친화적이지 아닌 태도를 일삼아 오다가 이번에 또 돌출발언을 한 것이다.

또 한사람 '미셸 스틸 박'은 어려서 한국문화와 한국의 정신을 잘 교육시켜준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고, 능력있는 미국인 변호사와 결혼한 뒤 한인사회로부터 큰 지원을 받아 이번에는 연방하원에 도전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데 그녀가 지난 1월 10일자 워싱턴 이그재미너紙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한 비핵화 노력에 방해가 되는 한국정부"라는 제목으로, '북한에 유화적인 한국의 유약한 정책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온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다른 강경 공화당 정책을 나열해 한반도 평화를 갈망하는 한인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글을 게재해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

20여 년 전 동부에서 '로버트 김 간첩사건'이란 게 있었다. 김채곤 씨가 미국 해군의 정보를 한국 관리에게 유출했다는 죄목으로 간첩음모죄에 걸려 여러 해 동안 고생했다.(그 자료는 기밀로 지정되지도 않은 자료였다는 것이 나중에 판명됐다) 미국에 와 살면서 미국이 의심할만한 그런 어설픈 애국심을 발휘하는 건 미국에나 한국에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받아드리기 쉽지 않지만, 사는 터전이 바뀌면 모습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기 마련이다.

미셸 스틸을 포함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을 이민자들이 이제는 '낳은 정'으로부터 놓아주어야 한다. 다만 핏줄의 역설로, 살아온 세월과 살아 갈 세월을 구획짓겠다며 '흰 페인트를 뒤집어 쓴 까마귀'로 살아 갈 것인가 아닌지는 그들의 몫이다.



신호범 전 상원의원



미셸 스틸 박 후보

김승월 칼럼

받아 들이기

김승월
(편제·이사)

“차갑고 잔인한 순간을 운명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자리”

‘방송PD’라는 일의 특성을, MBC라디오 ‘여성시대’ 작가 박금선은 그리 말했다.

PD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욕심에 좋은 사람을 고른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작가, 출연자, 스태프를 교체하는 경우가 생긴다. 해서 봄, 가을마다 하는 프로그램 개편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잘려나간다. 출연자, 작가, 스태프 대부분은 프리랜서.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 프로그램 진행자 경우는 방송 사례 차원 만이 아니다. 일이 너무 좋아서 놓고 싶어하지 않기도 한다.

나가기 싫어하는 분들을 내보내야 하니 프로그램 책임자인 PD는 잔인한 역할을 할 수밖에.

〈황인용의 FM 모닝쇼〉라는 프로그램의 PD 때다. 개편이 되어 새로운 작가를 찾았다. 몇 명을 불러서 원고도 받아보고 심성도 살폈다. 한 눈에 흡족한 작가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비교해서 나은 분을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작가를 면접했는데 감각적으로 잘 쓰는 분이였다. 하지만 전하는 메시지가 약해 보였다.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색다르게 쓸 수 있는 작가를 찾고 싶은 바람에, “저희 프로그램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저를 불러준 것만도 고마워요. 좋은 작가 찾으시길 바래요.” 잘린 사람보다 자른 내가 당황했다. 그 넉넉한 인상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서 다른 기회에 그 작가를 불러 일한 적이 있다.

정원식 전 서울대학교 교수는 문화교육부장관 당시 전교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가 국무총리에 지명되자 학생들은 분노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마지막 강의를 하러 갔다가 학생들이 뿌린 밀가루를 온통 뒤집어쓰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50년’을 연출할 때, 현직에서 물러난 그분을 만나 증언을 녹음했다. 당시 3당 합당으로 여당 총재가 된 김영삼은 대통령후보가 된 뒤 중립내각을 요구하며 정원식 국무총리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는 총리에서 물러났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정원식은 김영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는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니 저에

게 한 일에 대해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자신을 자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김영삼 대통령후보는 정원식 전 총리에게 민자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겼다.

잘리고 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프로그램 진행자를 바꿀 때, 교체 통지할 적절한 시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미리 알려주면 감정 조절하기 힘들어 프로그램을 망친다. 소리 내 울면서 방송하는 분도 있다. 해서 비정하게도 개편 직전 알려주기도 한다.

성깔 있는 분들은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모진 말을 남기고, 생방송 직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제작진은 당장 대타로 방송 진행할 사람을 찾느라 쫓겨다 돌고 돌다 다시 오기도 하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PD 때다. ‘별밤극장’이란

인기 코너가 있었다. 진행자 이문세와 개그맨, 탤런트 등이 드라마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개편이 되어 맘에 둔 새로운 출연자로부터 출연 약속을 받아 낸 뒤 개그우먼 출연자를 잘랐다. 미안해서 주저주저하며 전화했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저는 늘 별밤 팬이에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1990년대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 코너 ‘별난 여자’에서 박미선과 함께 연기를 했던 ‘정재윤’이다.

‘서렌더’surrender. 행복이나 굴복,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내맡긴다 또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걸로 볼게 아닌가 보다. 때로는 상대를 넘어서고, 심지어 굴복시키기도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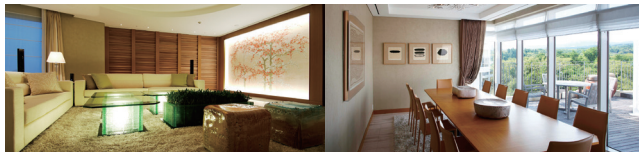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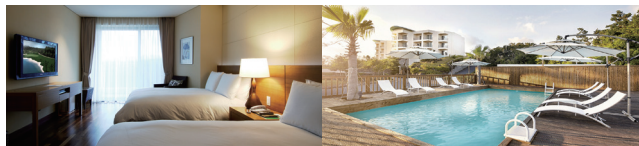
2019 TOP10 COURSES IN KOREA GOLF MAGAZINE

테디밸리 골프 & 리조트

서울경제 골프매거진 선정
2019 대한민국 10대 골프장

TEDDY VALLEY 테디밸리 골프 & 리조트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기상변화가 심한 제주에서도 4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최고의 지리적 위치를 자랑합니다. 평균고도 190m의 낮은 위치는 안개, 바람, 비의 영향이 적어 4계절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평화로변에 위치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제주공항에서 30분, 중문까지 7분 거리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라산과 산방산이 어께를 나란히 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는 골퍼들에게 큰 축복받은 땅입니다.



699-92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덕면 한창로 365
문의 (064) 793-1000

인터뷰

사랑과 신뢰 받는 MBC를 만들겠습니다.

지난날에는 ‘폼 나고 영광된 자리’였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고심과 번민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MBC대표이사. 내년이면 창사 60주년을 맞는 MBC의 35대 박성제 신임 사장을 만난 것은 취임식 5일 만인 3월 6일 오후였다.

최근 시청률이 많이 회복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산적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책을 맡은 소감은?

과거 MBC 사장에게는 ‘외압으로 부터 회사를 보호하라’는 주문이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오늘 저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사장 선임과정에서도 그랬고 사원들 역시 ‘경영을 잘 해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으로 선임된 날 딱 하루 빼고 연일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년간 MBC는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예능도 꾸준히 시청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MBC가 갖고 있는 저력을 믿기 때문에 사원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들을 잘 견인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거라는 희망과 함께 책임감 또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우리 제품의 소비자인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조금 덧붙인다면?

제가 취임사에서 딱 하나만 제시하겠다고 한 게 뭐냐 하면, ‘조직의 움직이는 방식을 좀 빠르고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정형화된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자’라고 했습니다. ‘지상파 독점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모든 콘텐츠가 각자의 플랫폼에서 경쟁하는 시대가 됐고, 지상파는 ‘여러 플랫폼 중의 하나’로 전락한 현실에서 종래의 도식적이고 정형화된 프로그램 제작방식만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

니다. 뉴스를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이 새로운 콘텐츠 시장에 맞게 변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하는 게 옳은 것이냐’의 기준은 다름 아닌 ‘시청자의 요구(needs)’라는 겁니다. 회사의 각 조직들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용도 빠르고 탄력성 있게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공약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드라마로 예를 들자면 ‘제작 시스템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즉 PD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먼저 팀이 만들어져서 팀에서 원작을 찾고 작가를 찾고 캐스팅도 하면서 PD가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드라마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미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키워드 첫 번째로 ‘소통과 토론의 리더십’을 거론했습니다. 사장의 리더십만을 얘기한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물론입니다. 아시다시피 MBC는 국장중심제입니다만, 제가 볼 때 이 조직에서 쥔 중요한 것은 부장 또는 팀장들의 능력과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이끄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과를 만들어 내는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제가 그들에게 주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후배들과 소통해라. 그러나 결정은 부(팀)장의 몫이며, 그 결정된 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도 당신들의 책무다. 후배들도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부장을 존경한다. 다음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윗사람도 간섭하지 않고 성과도 잘 나온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후배들은 확실하게 대우해줘라. 그래서 능력이 인정받는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조직은

활성화 된다. 이걸 제가 보도국장을 하면서 경력사원들과 기존 사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직접 겪어본 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능력 중심의 유연한 세대교체’를 들었는데, ‘유연한 세대교체’란 어떤 것인지.

93년에 입사한 제 위로 약 2백여 명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장들이 2000년 이후 입사자들입니다. 일부 국장도 있구요. 과거에는 보직에 있다가 물러나면 현업과는 멀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무엇보다 현업 인원도 부족하구요. 선배들이 후배 부장의 지휘를 받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단적인 예로 기존에 고참 기자들이 가득했던 보도국 해설위원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인력들은 ‘뉴스외전’이나 인터넷 뉴스 쪽에서 후배들과 함께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겠지만 틀이 잡히면 ‘누구든 보직을 마치면 후배들과 함께 다시 현업으로 돌아간다’는 관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뜻에서 유연한 세대교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세대교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독립성 보장을 통한 신뢰도 제고’라고 했는데, 어떤 독립성 보장을 말씀하신건가요.

과거 공영방송은 권력이나 자본(광고주 등)들의 압력을 막아주는 제도적 장치 또는 그런 의지를 가진 경영자 등을 통해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한 신뢰도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 파업도 하고 그랬죠. 즉 ‘힘있는 외압에 대항하는 게 언론의 의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장이 됐습니다. ‘임명동의제’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오늘날 언론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 정부와 시청자들의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늘 ‘시청자들은 우리(기자, 제작자)보다 똑똑하



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가 시청자들의 상식과 판단에 어긋나면 시청자들은 바로 떠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유튜브 등을 통해 새로운 웃음 소재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식 개그프로그램을 고집한다고 되겠습니까?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미디어 중에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이른바 ‘팩트체크’가 바로바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많은 전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MBC가 모든 면에서 가장 ‘정확하고 전문적이며 수준이 있다, 그래서 MBC를 신뢰한다’라는 평판을 받는 게 제 목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우회 선배들의 모든 관심은 ‘MBC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은 느끼겠지만 공감하실 것으로 믿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죠. 여러 선배님들이 노력과 정성을 들여 이뤘던 MBC의 명성이 무엇 때문에 시청자들로부터 한때 외면당했었는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 임기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켜봐주시고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수선한 시절에 선배님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편집장)



참 좋은 날, 2580에서 걷던 길



이우호(보도)

나는 통념을 벗어난 기자의 길을 걸었다. 34년 6개월에 이르는 방송기자 경력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대목이 있다.

내가 출입했던 기관 즉 출입처가 딱 두 군데 뿐이다. 서울시청과 환경처. 그 기간도 1990년을 전후로 2년 남짓이다. 왜 그럴까.

앞으로 되돌려보면, 5공 때는 프로야구 취재를 오래 했고 노조 사무실에서 2년간 전임했다. 그 뒤엔 『시사매거진2580』을 제작하다가 특파원으로 나갔다 오니 보직간부 연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입사 5년차부터 간헐적으로 연출한 다큐멘터리가 열네 편에 이른다. 기자였는지 PD였는지 헷갈리는 경력이다.

어쨌든 두 번째이자 마지막 출입처였던 환경처(지금의 환경부)를 출입하던 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환경회의를 취재했다. 80개국 정상들이 모인 초대형 이벤트였는데 앙숙이던 미국의 부시와 쿠바의 카스트로도 볼 수 있었다. 거기서 나는 의외의 반가운 인물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환경운동가였던 가수 존 덴버. 그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와는 또 다른 인연이 있다.

나는 존 덴버의 〈Back home again〉을 ‘내 마음의 고향’으로 번안해서 제1회 대학가요제에 출전했다. 본선까지 갔으면 좋으련만 2차 예선에서 탈락했다. 훗날 후배들이 나를 소개할 때 “대학가요제에도 나간 분예요”하면 “아뇨, 본선에는 못 갔어요” 정정을 해주곤 했다. 근데 이젠 나이를 먹어 뽀뽀해진 건지 같은 얘기가 나오면 “아 네, 뭐 그냥...” 하면서 얼버무리고 만다. 그런 인연이 있던 존 덴버는 나와 인터뷰를 하고 5년 뒤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졌다. 그 때가 쉰다섯. 좋아했으나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나의 인물’ 가운데 하나다.

브라질에 다녀 온 나는 짧은 뉴스가 아닌 긴 콘텐츠를 만드는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그때 만든

『광주, 1993년 5월』은 5공의 부끄러운 기자였던 내 죄의식을 조금은 덜어줬다. 다큐멘터리는 나주정신병원에 있는 어느 시민운동가의 켄한 눈에서 시작된다. 5.18때 모진 고문을 당한 그는 기억을 잃은 채 소리없는 신음을 내고 있었다. 그렇게 13년 고통의 세월이 흘렀다. 창살을 잡고 서있는 남편의 앙상한 얼굴을 바라보며 부인은 말했다. ‘이젠 다 말라버려서 흘러내릴 눈물이 없다’고. 그들을 처음 본 순간의 먹먹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내가 다큐멘터리에 탐닉하게 된 데에는 두 선배 기자의 영향이 컸다. 제작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김종오, 김승한 선배. 섬세한 감성에서 우러난 필력과 깊은 통찰로 다큐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분들이다. 『그때를 아십니까』, 『임란4백년-다시 보는 일본』 시리즈는 지금 봐도 교과서 같은 명작이다. 그런 선배들이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시사매거진2580』이란 새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내가 꿈꾸던 이상향이었다. 전성기가 언제냐 묻는다면 『2580』 깃발을 꽂은 94년부터다.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던 그때, 제작을 지휘했던 부장이 김종오 선배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그가 『2580』이 출범할 때를 회고한 글이다.

일요일 방송을 가까이 앞두고 밤샘하던 누구들 책걸상 위 맨발과 양말과 라면과 담배는 그러나 제목 없는 정물화처럼 지금도 깊은 여운을 불러일으킵니다. 2580이 걷고자 했던 길은, 쉽고 조용하게 다가와 세상을 깊게 이르고 그리고는 작은 걸음으로 흥을 내어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580』방송 10주년 기념문집 중에서 2004년 9월—

이 글에는 추구했던 특성과 색조, 정서와 리듬이 들어있다. 그때 제작진의 숙제는 기존 시사고발 프로와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달라야 하는 ‘그 뭔가’는 도대체 뭔가. 제작진은 토론을 거듭한 끝에 『2580』의 가이드라인과 기본 레시피를 도출했다.

“15분짜리 ‘미니 다큐’ 3편으로 구성한다. 강력하면서도 실험적인 기법의 고발, 약자들의 고난과 그 뒤

에 숨은 부조리 추적, 재미있고 의미 있는 세태와 풍속 스케치. 그런 얘기들로 하드와 소프트를 적절히 배합한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하드보일드와 스릴러, 사회성 짙은 느와르, 감동적인 휴먼드라마 장르를 다 녹여보자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이름은 동료 임흥식의 아이디어다. 2580은 전화번호판 가운데 위아래로 죽 내려가는 숫자다. 제보전화를 걸기 쉽게 하자는 의도를 담았다. 제작의 진용이 짜였다. 데스크를 함께 할 두 동료는 내가 갖지 못한 좋은 덕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를 구현할, 저마다 개성이 튀는 기자들이 모였다. 저돌적인 사람, 이면을 들추기 좋아하는 사람, 문학적 감성이 번뜩이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잘 구사하는 베테랑 영상기자, 기자들만큼 기여도가 큰 조연출 후배들도 모였다.

94년 2월 27일 밤 9시 30분. 사무실에는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2580을 누르면 사이렌 소리가 나는 타이틀 음악이 울렸다. 다들 가슴 졸인 가운데 첫 방송을 내보냈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뭔가 좋은 예감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입시 발표를 보러 온 수험생처럼 조마조마, 사무실에 들어섰다. 왁자지껄 떠들고 웃고 야단법석이 었다. 시청률 24%. 동 시간대 1위는 물론, 인기드라마와 거의 맞먹는 수치였다. 그 후로 30%를 가끔 넘어서면서 장르를 통틀어 ‘주간 시청률 베스트10’에 여러 번 올랐다. 신문의 방송 비평에서는 ‘아주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의 탄생’이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지금도 난 그때 시청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긴 힘이 뭔지 잘 짚어내지 못하겠다. 다만 다른 시사프로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던 건 분명하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다’라는 메시지를 짚은 영화처럼 감동적인 서사로 빚어낸 이야기가 많았다.

남루해 보여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달동네 사람들, 버리고 간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보육원 아이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다가 호스

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맞게 된 40대 여성의 삶이 그랬다. 구두담이 소년이 청년 변호사가 되기까지 걸어진 길에는 미담을 넘은 ‘뭔가’가 있었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세태를 풍자한 ‘감추고 싶은 진실’에는 긴 울림이 있었다. 비율로 보면 강하고 묵직한 고발리포트가 더 많았다. 어떤 병원에 드나든 최고위층 아들의 영상은 권력게이트가 드러나는 실마리가 됐다. 재벌의 변칙상속 실태를 처음 들춰내기도 했는데, 이 보도를 놓고 회사가 들썩거렸다. 그 재벌이 최대의 광고주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외압을 이겨내고 방송에 내보낼 수 있었다.

40년간 은폐된 ‘노근리 학살’ 폭로는 특종을 내세운 AP통신보다 2년 앞선 리포트였다. 안기부의 북풍공작도 처음 보도했다. 전자오락실에 얽힌 조폭과 경찰의 유착. 매항리 미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고통. LA로 간 ‘IMF결’의 실체. 83년 소련에서 격추된 KAL007기 미스터리를 파헤친 집요함도 특별했다.

토요일 밤 녹화 스튜디오는 늘 북적거렸다. 그 주간의 담담이 아닌 동료들도 남아있었는데 끝나면 같이 한잔 할 요량이었다. 호프집에서 시작된 술자리는 파랑게 동트는 포장마차에서 파하곤 했다. 메리 홉킨의 노래 〈그 옛날이 좋았지 Those were the days〉에는 밤을 지새우게 했던 우리들의 열기가 그대로 담겨있다.

그 옛날 선술집이 있었지/우리가 술잔을 들고 부딪치던 거기/웃고 떠들던 그때를 기억하나 /성취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해보게/우린 세상과 싸웠고 진 적이 없었어/절고 확신에 차 있었지/친구여, 참 좋은 시절이었네/그런 날이 끝없이 갈 줄 알았어

『시사매거진2580』은 사라진 프로그램이다. 어쩔 수 없이 수명을 다한 거 같았다. ‘세상을 깊게 이르고, 작은 걸음으로 흥을 내어 돌아갈’ 여유가 없는 시대엔 맞지 않아 보인다. 씩씩해도 그게 현실이다. 끝없이 갈 수 없었던 ‘좋은 시절’은 24년을 함께 한 제작진에게 많은 추억과 그리움을 남겼다.

사무처 리포트

특별한 식당, 참치 전문점 ‘솔참치’



이석일 사무처장

사우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소개하는 ‘사무처 리포트’가 이번에 찾은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자리한 참치 전문점 ‘솔참치’다.

김낙현(관리) 회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화인협동조합’이 ‘직영 F&B 1호점’으로 조심스레 내놓은 일종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이다. ‘동화인협동조합’은, 남양주시에 있는 동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들 중 전문경제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2019년 5월에 창립됐다.

‘나눔, 창조, 공유’의 가치 실현을 위해 조합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구리, 남양주지역 최대의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다.

현재는 60여명이 회원이지만, 동

문이 아니라 해도 조합의 설립취지와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문이 열려 있다.

김낙현 회원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5G 시대다. 개방과 공유, 협력은 시대정신이 됐고, 이러한 시대조류에 기반한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동화인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방향을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공언한 동화인협동조합은 ‘솔참치’를 필두로, 향후 ‘조합원 제주제’ 방식으로 구리, 남양주에 두 곳 이상의 F&B 직영점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비즈니스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그 첫 번째 모델이 ‘솔참치’다. 남양주시 별내동 상업지구 진영N타워 2층에 있는 ‘솔참치’는 70여 평의 넓은 공간에 ‘최고의 위생, 서비스, 품격’을 목표로 한다. ‘정결한 분위기에서 참치의 깊은 맛을 우아

하게 즐기고 싶은’ 손님들을 위한 식당이다.

‘참치박사’라고 칭해도 될 24년 경력의 셰프는 물론, 조리사, 서빙, 캐시어, 대리기사까지 모두 조합원이고, 식당에 납품하는 사업자들 또한 조합원이다.

한마디로 ‘조합원 아니면 안되는’ 사업장. 그래서 입사는 있어도 퇴사는 없다. 기본급 외에 매출 이익의 30%는 조합원인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손님이 주는 팁은 따로 모았다가 한 달에 한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서 식사대접과 함께 나눠 드린다.

‘MBC를 다니는 동안 받은 것들



이 너무 많아 이제부터는 봉사하고 나누는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다’는 김 회원의 온화한 표정에 서린 결기를 느낀다.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동체사업의 성공 여부가 목표인 만큼 꼭 이 모델을 성공시켜 다른 지역에도 우리를 본딴 협동조합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김 회원이 주도하는 ‘솔참치’를 한번쯤 방문해보시길 권한다.

특히 MBC사우회보를 갖고 오는 사우회원에게는 참치 1인분을 서비스로 드린다. 창업 문의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예약전화는 031)574-5161.



1960년에 태어나 2020년 오늘까지,
지난 60년 간의 도전 속에서
아주는 행복을 배웠습니다.

60세의 지혜를 더한 20대의 젊음으로,
아주는 또 다른 혁신을 꿈꾸며 새롭게 태어납니다.

AJU **아주**

아주산업 브이생 아주지오택 공영해운 아주메트릭 아주캠보디아 아주미인마 아주네트웍스 아주오토리움 아주모터스
아주8투자 아주호텔엔리조트 아주호텔서교 아주호텔제주 아주프론티어 아주큐엔에스 엘티움 아주복지재단

ARTWORK KIMU STUDIO 카루 스튜디오는 '특별한 발달장애인 디자이너'와 함께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